

순천 고병원성 AI 인체 감염 차단 고심

중국서 2년동안 H5N6형 감염된 17명 중 10명 사망

전남도 철새도래지 10곳 잠정 폐쇄...재난대책본부 발족

질병관리본부 "막연한 두려움 경계...개인위생 철저" 당부

순천만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치명적인 고병원성 H5N6형으로 판정됨에 따라 인체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H5N6형은 닭에게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이고, 사람에게 감염되면 60%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순천만 등 철새도래지 10곳을 잠정 폐쇄하고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21일 전남도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국에서 17명이 H5N6형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중 10명이 사망해 58.8%의 사망률을 기록했다. 중국은 제외한 타 국가에서는 인체감염이나 사망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H5N6형 바이러스는 AI에 감염된 닭과 오리, 칠면조 등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배설·분비물 등을 통해 전파된다.

감염자는 38도 이상 발열과 기침, 근육통 등 전형적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초기 증상을 보인다. 이후 폐렴, 급성호흡기부전 등 중증호흡기질환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신경계 이상으로 번지기도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심각성을 경고하면서도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강조한다.

가금류 접촉이 감염 주원인이지만 국내 AI 발생 농가 주변은 방역 초소로 통제된 만큼, 인체감염 가능성은 적다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인체감염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손

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라며 "AI 발생지역 방문 이후 호흡기에 이상을 느꼈다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순천만 등 철새도래지 10곳을 잠정 폐쇄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족

하는 등 AI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순천만은 이날 관광객의 입장을 전면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 영산강과 영암호, 득량만은 지난 20일부터 폐쇄됐고, 철새 관찰로가 있는 고천암과 강진암, 영암호도 22일부터 출입이 통제된다.

고흥만과 해장만은 탐방 코스가 없어 사실상 사람의 출입이 어려운 곳이지만, AI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11곳에서 운영하던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26곳으로 늘려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을 본부장으로 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전남도는 23일 시·군 공무원과 계열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I 방역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철새도래지 방역, 축산 농가 및 차량에 대한 소독, 거점소독 시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I 가상방역훈련

21일 광주시 광산구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무원들이 구제역과 AI발생에 대비해 가상방역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각 구청 관계자, 가족위생방역지원본부, 광주축협, 지역축산농가 등 100여명이 훈련에 참가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공수 지휘관 교도소 현장 증언 순찰로 인근 등 새 암매장지 지목

5·18재단 증언 토대 조사 방침

5·18 당시 시민을 사살한 뒤 암매장했다고 양심 선언한 3공수역단 11대대 소속 신순용 전 소령(광주일보 11월13일자 1면, 3면)이 옛 광주교도소를 방문, 암매장 장소를 지목했다.

5·18기념재단은 21일 "신 전 소령을 교도소로 초청해 암매장 진술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신 전 소령이 지목한 암매장 추정지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도소 서쪽 담장 주변으로 5·18 이후 폐수처리시설이 증축된 곳이다.

또한 신 전 소령은 5·18기념재단 관계자들과 교도소 담장을 따라 돌며 다양한 장소를 암매장 추정지로 지목했다.

신 소령은 "당시 계급이 높은 편에 속해 다른 대대 구역도 둘러볼 수 있었는데 담장을 따라 구덩이를 파고 시신 2~3구씩을 던져 넣었다"며 암매장 장소로 순찰로 인근을 지목했다.

현재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복쪽 담장 부지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복쪽 담장과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 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재단 관계자들은 신 소령이 말한 복쪽 담장 내용은 '시신 6구를 묻었다'는 검찰 기록에 나온 교도소 공동묘지와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소 공동묘지는 무연고 사형수 시신을 매장했던 장소로 광주 북구 각화동에서 문흥지구로 이어지는 왕복 6차로 도로 주변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 소령은 또 교도소 습격설에 대해 "교도소 습격이 있었다면 교전 과정에서 군인 중 부상자가 나와야 하는데 부상자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며 "교도소 습격설은 말도 안된다"고 증언했다.

그는 유족회 관계자들을 만나 "시위 때 3명을 사살해 묻었다"는 이야기를 꺼내며 "그때는 여쩔 수 없었는데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광주에 왔다"고 거듭 사죄했다.

재단은 신 전 소령에 이어 5·18 당시 3공수 본부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유모씨의 초청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5~16일 진행된 땅속탐사레이더(GPR·Ground Penetrating Radar) 조사결과와 증언을 종합해 언론에 내용을 공개하고 발굴조사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해경, 성범죄 해경 파면 이례적 공개

이미지 실추 막고 재발 방지

목포해양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해경의 파면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새출발을 다짐한 해경의 이미지 실추를 막고 성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보여준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목포해경은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0) 순경을 파면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달 24일 밤 10시50분께 목포시 한 카페에서 혼자 근무하던 B(16)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순경은 또 B양이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자 신고를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순경은 만취해 혼자 카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경찰청은 A 순경을 구속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으며 이 사실을 해경에 통보했다.

해경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공무원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처분을 내렸다. 내부회의를 열어 재발방지과 해경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홍희기자 kimyh@kwangju.co.kr】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공군 1전비도 AI 차단 방역 지원 나서

상황 종료될 때까지 총력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이 2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차단을 위해 광주·전남 지역에서 방역지원에 나섰다.

1전비는 광주·전남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구축한 상호협조체계에 따라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되자 방역지원에 나섰다.

1전비 화생방지원대 요원들은 이날부터 KM-9 제독차량을 이용하여 영광군 한빛원전 인근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에 방역 약품을 살포했다.

22일에는 함평군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 23일에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산유원지 일대에서 방역지원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역지원은 AI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된다.

1전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광주 광산구, 전남 장성·함평·영광군 일대에서 총 195회의 방역지원을 해 AI 확산 방지에 이바지했다.

1전비 화생방지원대 김영덕 준위는 "AI 재발로 피해를 보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적인 방제노력으로 AI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회 불만에 상가밀집지역 방화 40대 집중

법원, 피해 경미·범행 반성 참작

법원이 실직 이후 사회에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 상가밀집 지역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일반건조물방화미수와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자정께 수차례에 걸쳐 광주 모 시장 건물 벽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 등에 불을 지른 혐

의다.

A씨는 자신이 다니던 업체의 부도로 실직한 뒤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불을 지른 지역은 상가 밀집돼 있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번졌다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방화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재산 피해가 경미한 점,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